

#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는 경로 -사회발달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을 중심으로\*-

이지현

(연세대학교)

##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과정을 사회발달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에 근거하여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의 매개변인으로 구성된 경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10월 15일~11월 25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50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1,836부 중 응답이 부실한 59부와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라고 응답한 214부를 제외한 총 1,563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의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청소년, 아동학대 경험, 학교폭력 가해행동,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 사회발달 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

## 1. 서론

학교폭력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정부는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로 수차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이 최근 6년간의 학교폭력 발생추이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하겠다.

일찍이 청소년 폭력문제를 주요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 온 미국에서는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이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관련연구들에 따르면, 전체 학생 대상의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과 폭력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적 개입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적 접근(Leff et al., 2001; The Multisite violence prevention project, 2009)을 실시할 때, 청소년 폭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국내에서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서울의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환경 개선의 보편적 접근과 함께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욕구에 맞는 집중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학교폭력·성폭력 Free-Zone’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 사업을 적용한 학교의 폭력률은 비교대상 학교의 폭력률에 비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요청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2011).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학교폭력 해소를 위해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방프로그램과 함께 고위험 집단을 선별하여 이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개입을 병행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집단이 어떠한 과정과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학교폭력 문헌에서는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집단의 특성으로 아동학대 경험을 지적하고 있다(김소명·현명호, 2004; 이은희 외, 2004; 노충래·이신욱, 2005; 김재엽 외, 2008; 조춘범·조남홍, 2011; Ohene et al., 2006). 즉,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현장에서 또래를 향한 폭력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별적 개입을 모색함에 있어 피학대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임을 제시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 학대경험이 어떠한 기제와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김소명·현명호, 2004; 김재엽 외, 2008; 조춘범·조남홍, 2011)에서 피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는 기제를 사회정보처리모델, 사회학습이론, 자아통제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인지 결함, 폭력용인도, 자아통제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심리내적 측면에 국한하였고,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학교나 또래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피학대 청소년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행동패턴이 청소년 개인과 가정, 학교, 또래 등 사회화 기관과의 유대감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회발달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Catalano and Hawkin, 1996)을 통해 아동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 차별접촉이론을 연계한 통합이론으로 기존의 단일이론이 갖는 한계점과 설명력을 보완할 수 있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Herrenkohl et al., 2003). 기존이론들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사회통제이론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에 초점을 두고 가정과 학교 등 인습사회와의 유대를 반사회

적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화 기관 내에서 그러한 유대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Catalano and Hawkin, 1996). 또한 사회통제이론의 기본가정 하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비행또래집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한다(Demanet and Houtte, 2012). 한편, 사회학습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은 무엇이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반사회적 행동이 학습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동일한 위험환경에서 사람들이 개인차를 보이는 사실을 경시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Huang et al., 2001). 따라서 기존의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차별접촉이론을 연계한 통합이론으로서 사회발달모델은 개인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화 기관 등 생태학 구조를 통합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거나 유발하는 요인을 하나의 모델 속에서 모두 고려하여 이들 요인 간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으므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Catalano and Hawkins, 1996; Hawkins et al., 2007).

이처럼 청소년 개인의 문제행동을 다양한 사회화 기관과 그 속에 내재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으로 이해하는 사회발달모델 관점은 사회화 기관 내에서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보호요인과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인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므로 피학대 청소년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입전략의 모색을 가능케 한다. 국외 청소년 문헌(Catalano and Hawkins, 1996; Huang et al., 2001; Lonczak et al., 2002; Hawkins et al., 2007)에서는 사회발달모델에 근거하여 비행, 성행동, 폭력행동 등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문헌에서 사회발달모델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아동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사회발달모델에 근거한 모형으로 검증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여 전무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사회발달모델의 주요 개념에 근거하여 친사회화 기관과의 유대감으로서 부모애착 및 학교유대감, 반사회화 기관과의 유대감으로서 비행친구접촉을 매개변인으로 상징하고,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친사회화 및 반사회화 기관과 어떠한 관계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사회발달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

사회발달모델은 기존의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의 주요 개념과 가정을 결합시켜 청소년의 행동형성을 설명하는 사회화 과정이론이다(Catalano and Hawkins, 1996). 사회발달모델은 사회통제이론과 유사하게 사회유대를 핵심개념으로 한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기제로서

친사회화 기관과의 유대에 초점을 둔 사회통제이론과는 달리 사회발달모델에서는 친사회화 기관뿐 아니라 반사회화 기관과의 유대감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의 행동형성을 설명한다(Huang et al., 2001). 사회발달모델에서는 3가지 구조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과 사회화 기관 간에 유대감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사회화 과정은 3가지 구조 (1) 참여와 상호작용 기회(opportunity for involvement and interaction), (2) 참여를 위한 기술(skills for involvement), (3) 참여에 대한 강화(reinforcement for involvement)를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화 기관과 개인 간에 유대가 형성된다(Maddox and Prinz, 2003; Drapela and Mosher, 2007). 사회통제이론에서 참여는 애착, 헌신, 신념과 함께 사회 유대를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사회발달모델에서 참여는 사회유대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사회유대 형성의 필요조건이자 메커니즘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사회통제이론과 차이가 있다(Maddox and Prinz, 2003).

사회발달모델의 핵심개념으로서 사회유대는 개인과 사회와의 연결감, 즉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적인 환경 사이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끈을 의미한다(Shoemaker, 2005). 가정과 학교는 대표적인 친사회화 기관으로서 이들 기관과 유대감을 잘 형성하게 되면, 반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는데, 친사회화 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한 개인은 일탈행동을 할 때 애착과 헌신의 손실 등 유대관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유대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기관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된다(Williams and Hawkins, 1986; Battistich et al., 2004). 반면, 친사회화 기관과의 결핍되고 손상된 유대감은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데, 친사회화 기관과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으로 초래되는 애착과 헌신의 손실의 희생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Battistich et al., 2004).

사회발달모델에 따르면, 친사회적 혹은 반사회적 또래집단과의 유대형성은 청소년이 이러한 또래들과 교류할 기회, 또래집단이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할 수 있는 기술,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오는 보상 정도에 따라 결정지어진다고 말한다(Hawkins and Weis, 1985). 가족 구성원, 학교 관계자, 또래집단으로부터 기대되어지는 행동 규범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면 가족과 학교에 대한 유대가 또래집단에 대한 애착형성을 막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친사회화 기관으로서 가족과 학교 등에서 보상받는 행동과 비행또래집단의 반사회화 기관에 의해 보상받는 행동은 양립되기 어려우므로 가족과 학교에 대한 유대감 형성은 비행또래집단과 유대를 형성할 가능성을 감소시켜줄 것이라고 가정한다(Hawkins and Lishner, 1987; Black et al., 2010). 사회발달모델에 따르면, 부모의 무관심하거나 일관성 없는 훈육, 학교에서의 낮은 성취도, 교사의 비일관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사회순응적인 타자에 대한 유대감 형성이 저해될 경우, 자신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비행또래들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진다고 설명한다(Catalano and Hawkins, 1996). 이러한 청소년들은 비행또래와의 교류와 유대를 통해 인습사회 환경에서 제공되지 않는 사회적, 심리적 지원, 보상, 강화를 제공받게 되고(Cohen and Short, 1961; Catalano and Hawkins, 1996에서 재인용), 부정적 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비행행동에 쉽게 가담하게 된다(Herrenkohl et al., 2003). 이처럼 사회발달모델은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화에 중요한 기관으로서 가정, 학교, 또래 등 생태학적 구조를 통합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거나 유발하는 유대과정을 이론적인 경로로 구성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므로 청소년의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한 다차원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파악함에 있어 사회발달모델의 관점을 적용하여 친사회화 기관으로서 부모 및 학교에 대한 유대감, 반사회화 기관으로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피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청소년 개인의 심리내적인 특성으로 파악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사회화기관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유대감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동을 사회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2)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 간의 매개변수로서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으로 사회화 대행자인 부모와의 애착형성은 인습사회 규범을 내재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Menard et al., 1993). 사회발달모델 이론가인 Catalano와 Hawkins(1986)는 부모-자녀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부모 양육기술로 자녀가 가족구성원과 교류하고 가족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것, 가족 내에서 행한 역할 수행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제공할 것,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 가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것,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대와 제재를 필요로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아동학대 부모들의 경우, 부모-자녀 유대감 형성의 전제가 되는 긍정적인 사회화 과정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애착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Sausa et al., 2011).

사회발달모델에서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내적통제의 기제를 통해 일탈행동 가능성을 낮춘다고 설명한다. 즉, 부모애착이 잘 형성된 청소년은 일탈기회 상황에 놓이더라도 일탈행동 시 예상되는 부모의 부정적 반응이 내적으로 작용하여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일탈기회 상황에 놓일 때, 일탈행동으로 잃어버릴 손실이 적으므로 쉽게 일탈행동에 가담하게 된다(Foshee and Bauman, 1994; Battistich et al., 2004). 부모애착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한 Eliot과 Cornell(2009), Walden과 Beran(2010)의 연구에서 부모애착은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부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나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연구(이은희 외, 2004; 김선아, 2005; Peacock et al., 2003)에서는 부모애착이나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부모애착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3)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 간의 매개변수로서 학교유대감

학교유대감은 학생이 학교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연결감이나 소속감, 학교교육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투자하는 헌신을 의미한다(Libby, 2004; Bergin and Bergin, 2009). 학교는 대표적인 친사회화 기관으로서 학교와의 유대감 형성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Catalano et al., 2004). 사회발달모델에 따르면, 학교유대감이 부모애착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Hawkins and Weis, 1985). Alvarez-Rivera와 Fox(2010)의 연구에서 학교애착은 부모애착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 부모가 청소년 자신들의 감정이나 의견을 존중해주며, 항상 자신들을 격려하고 믿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자신이 속한 학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학문적 성취를 위한 목표에 전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 여러 연구(Aviezer et al., 2002; Bergin and Bergin, 2009; Demanet and Houtte, 2012)에서 학생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 학문적 성취는 부모애착과 정적인 관련성을 갖거나 부모애착의 결과변인으로 보고된다.

또한 사회발달모델에서는 학교유대감이 학생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참여와 사회, 인지, 행동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고 유능한 수행과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을 받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Hawkins and Weis, 198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격성, 인지기능 결함, 감정조절기능 저하, 대처능력 부족, 대인관계기술이나 사회성기술의 결핍, 교사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정익중 외, 2006; Cicchetti et al., 2000; Ohene et al., 2006; Hong et al., 2012) 등 학대받은 청소년들이 갖는 특성들은 학교를 통한 사회화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학교유대감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Herrenkohl 외(2003)의 연구에서 부모의 체벌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헌신과 부적 영향관계로 나타나 부모의 신체체벌에 자주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학교 교육활동에 몰입하지 못하는 등 학교유대감을 형성할 가능성은 낮았다.

학교유대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의 규범과 가치 등을 내재화시키고 친사회적 활동으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비공식적 통제의 역할로 작용하므로 일탈행동의 가능성을 억제시킨다(Catalano et al., 2004). 학교와 유대감을 잘 형성한 청소년은 학교권위(school authority)를 존중하고, 학교의 교육적 목표와 그러한 기대에 부합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이에 따르는 비용의 희생이 크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학교의 규범과 가치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Naiaka et al., 2001; Catalano et al., 2004). 반면, 학교유대감이 낮은 청소년은 체면손상, 교사의 처벌 등 반사회적 행동으로 초래되는 비용의 희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일탈행동에 가담하게 된다(이상균, 2005). 여러 연구들에서 학교에 대한 낮은 유대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주요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다(권현용·김현미, 2009; Cunningham, 2007).

#### 4)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 간의 매개변수로서 비행친구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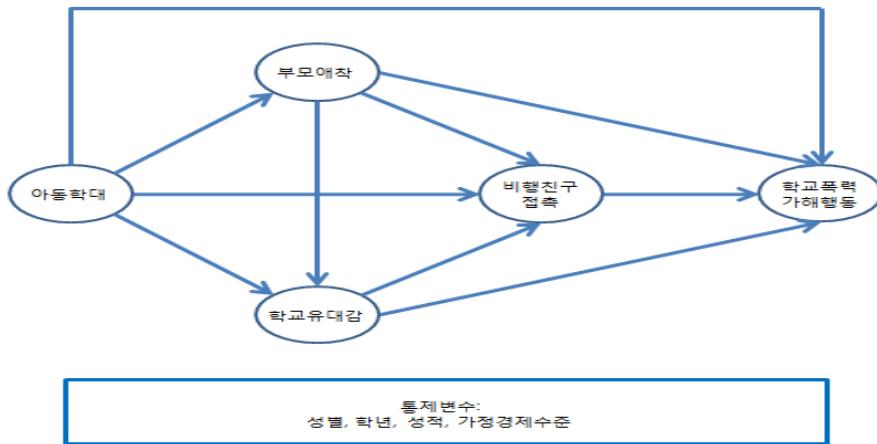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은 행동발달의 기준과 모범이 되거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이은희 외, 2004; Hong et al., 2012)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매체로 등장한다(Demanet and Houtte, 2012). Kears와 Gordon(1992)은 청소년들이 사회규칙을 벗어난 일탈행동을 하게 될지의 여부는 이들이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혹은 집단이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가치체계와 행동방식을 수용하는 부류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임영식, 1998에서 재인용). 사회발달모델에 따르면, 친사회적 혹은 반사회적 또래집단과의 유대형성은 청소년이 그러한 또래들과 교류할 기회, 또래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술,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오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설명한다(Hawkins and Weis, 1985). 인습적인 또래그룹의 우정은 평등, 상호호혜성, 진정성, 친밀감을 기초로 하는데(Mueller and Silverman, 1989; McCloskey and Stuewig, 2001에서 재인용), 부모의 지배와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친구와의 우정관계 형성에 필요한 긍정적인 사회화 경험이 결여됨에 따라 인습적인 또래그룹과의 관계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정익중, 2008; McCloskey and Stuewig, 2001). Bender(2010)는 학대받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들은 점차 '외톨이(loner)'가 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집단(wrong crowd)'과 어울리게 됨으로써 그 집단의 정체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반사회화 매체인 비행또래집단과의 유대형성은 친사회화 기관과의 유대감이 부실하거나 결여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발달모델에서는 부모의 무관심하거나 일관성 없는 훈육, 학교에서의 낮은 성취도, 교사의 비일관적 태도 등의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회순응적인 타자에 대한 유대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할 경우, 자신과 유사하게 친사회화 기관과 유대가 형성되지 않은 반사회적인 또래집단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진다고 설명한다(Hawkins and Weis, 1985). Edwards(1992)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결여될 때, 청소년들은 사회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사회적 또래집단과 어울릴 가능성이 높았다. 이은희 외(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애착 및 교사에착과 비행친구접촉과는 부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나 학교와의 유대감이 부실할수록 반사회화 매체인 비행친구와 교류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비행친구접촉에 대한 학교애착 및 교사에착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비행친구접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사회화 매체인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유대관계는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신념, 비행기술의 획득, 비행집단으로부터의 보상 및 강화를 통해 일탈행동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Hawkins and Weis, 1985). 특히 비행친구가 비행이나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12세-14세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시기로(이철, 2009), 중학교시기에 반사회화 매체로서 비행친구와의 유대는 학교폭력 위험성을 높이는 강력한 원인으로 보고된다(이상균, 2005).

### 5)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학대경험이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 접촉을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이상균, 2005), 학년(Chen and Astor, 2010), 학업성적(Richard et al., 2011), 가정경제수준(김순혜, 2007)은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 [가설 2]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의 매개요인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부모애착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학교유대감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비행친구접촉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4]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부모애착과 학교유대감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부모에착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학교유대감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부모에착과 학교유대감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 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 표집방법은 본 조사에 협조가 가능한 서울 및 경기지역 총 50개 중학교(서울시 11개 구 소재 24개교, 경기 16개시 소재 26개교)를 임의표집한 후, 각 학교 당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 청소년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조사를 위해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절차, 답례 등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연구자가 각 학교의 교장 혹은 교감의 동의를 얻은 후, 원칙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연구에 협조할 수 있는 교사나 학교 내 상담가가 확보된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는 대신 교사나 학교 내 상담가가 설문지 작성법, 설문 시 유의사항에 대한 연구자의 안내를 받은 후 실시하였고, 회신은 회송용 봉투를 활용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836부였으나 응답의 누락이 많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응답한 설문지 59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목적이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라고 응답한 214부를 제외한 후, 총 1,56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경험은 Straus 외(1998)의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PCCTS)를 사용하였다. PCCTS를 통해 조사대상자가 지난 1년 간 부와 모로부터 받은 정서 및 신체학대, 방임을 측정하였다. 정서학대는 욕설을 퍼붓는 행위 등 5문항, 신체학대는 주먹이나 발로 세계 때리는 행위 등 8문항, 방임은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돌보지 않는 행위의 2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범주는 없음(0점), 1년에 1-2번(1점), 1년에 3-5번(2점), 1년

에 6-9번(3점), 1년에 10번 이상(4점)으로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9$ 로 나타났다.

## (2)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이 개발한 IPPA(Inventory of Parent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 1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IPPA는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감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정도 등을 측정하는 5문항,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할 때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 소외감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유리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문항은 역채점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6$ 로 나타났다.

## (3) 학교유대감

학교유대감은 Hawkins 외(2001)의 학교유대감(school bonding)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으로는 '나는 우리 학교가 좋다', '숙제는 내 힘으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와의 유대감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79$ 로 나타났다.

## (4) 비행친구접촉

비행친구 접촉은 자신이 사귀는 친구들 중에 비행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로 정의하고, 학교에 무단 결석한 적이 있는 친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친구, 가출을 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총 8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이러한 친구가 있는 경우(1점), 없는 경우(0점)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4$ 로 나타났다.

## (5) 학교폭력 가해행동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의 학교폭력 척도에서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내용으로 언어·정서적 폭력은 욕설, 외모나 체형 등과 관련해서 놀리는 행위 등의 5문항, 신체적 폭력은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등 3문항, 금품갈취는 상대방의 물건을 갈취하는 행동 등 3문항, 괴롭힘은 심한 장난이나 심부름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등 5문항, 집단따돌림은 고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행위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없음(0점), 1-2번(1점), 3-5번(2점), 6-9번(3점), 10번 이상(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 수준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7$ 로 나타

났다.

### (6) 통제변수

성별은 여학생(0), 남학생(1), 학년은 중학교 1학년(0), 중학교 2학년(1), 중학교 3학년(2), 학업성적은 상(1점), 상중(2점), 중(3점), 중하(4점), 하(5점)로 측정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매우 부유한 편(1점), 비교적 부유한 편(2점), 보통(3점), 비교적 어려운 편(4점), 매우 어려운 편(5점)으로 측정하였다.

###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PASW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 MPlus Statistical Software를 활용하였다. PASW 18.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간의 경로관계는 AMOS 18.0 프로그램으로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추정방법은 결측치를 고려한 모수추정방법인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카이제곱 검증은 표본수에 매우 민감하므로(Hong et al., 2003)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져 좋은 요인모형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김주환 외, 2009).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적합도지수인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가 .90보다 크면 좋은 적합도,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로 간주된다(Browne and Cudeck, 1993; 홍세희, 2000에서 재인용). 본 연구모형은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 접촉의 다중매개를 포함하고 있다. AMOS 통계 프로그램의 경우, 결측자료가 있는 경우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AMOS 통계 프로그램은 다중매개모형에 있어서 전체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검증할 수 있지만, 특정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Lau and Cheung, 2012), 전체 매개효과와 특정 매개효과검증이 용이한 MPlu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는 정상성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고 분산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Kline, 2011), Shrout와 Bolger(2002)와 MacKinnon 외(2002)가 제시한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편향이 수정된 신뢰구간을 구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ed-Corrected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 4.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 청소년이 692명(44.3%), 여자 청소년이 871명(55.7%)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학년분포는 1학년 597명(38.2%), 2학년 549명(35.1%), 3학년 417명(26.7%)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지역별 구성으로는 서울지역 710명(46.8%), 경기지역 832명(53.2%)이었다. 학업성적은 대부분(74.6%)이 중위권 이상의 학업성적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 937명(61.8%)으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가족유형은 친부모와 살고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이 1,531명(98.0%)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563	
구분		명	%
성별	남자	692	44.3
	여자	871	55.7
학년	중1	597	38.2
	중2	549	35.1
	중3	417	26.7
지역	서울	710	46.8
	경기	832	53.2
학업성적	상(상위 20% 이내)	389	25.0
	상중(상위 20-40%)	342	22.0
	중(상위 40-60%)	429	27.6
	중하(상위 60-80%)	245	15.8
	하(상위 80% 이하)	148	9.5
가정의 경제수준	매우 부유한 편	44	2.9
	비교적 부유한 편	366	24.2
	보통	937	61.8
	비교적 어려운 편	146	9.6
가족유형	매우 어려운 편	22	1.5
	친아버지, 친어머니	1,531	98.0
	친아버지, 새어머니	15	1.0
	친어머니, 새아버지	17	1.1

##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변수들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sup>1)</sup>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변수의 특성

N=1,563

잠재변수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동학대 험 <sup>1)</sup>	정서적 학대	1.57	.99	-.027	-.967
	신체적 학대	1.22	.98	.408	-.780
	방입	.67	.69	.632	-.695
부모애착	부모에 대한 신뢰	3.87	.84	-.586	-.015
	부모와의 의사소통	3.34	.89	-.183	-.398
	부모로부터의 소외	3.94	.89	-.744	.107
학교유대감	학교유대감1	3.20	.76	-.893	.702
	학교유대감2	3.05	.75	-.675	.475
	학교유대감3	2.53	.86	-.045	-.656
	학교유대감4	2.87	.78	-.385	-.170
	학교유대감5	2.99	.81	-.560	-.109
비행친구접촉	비행친구접촉1	1.41	1.51	.588	-1.151
	비행친구접촉2	1.41	1.44	.575	-1.061
학교폭력 해행동 <sup>2)</sup>	언어·정서적 폭력	1.02	.81	.208	-1.041
	신체적 폭력	.79	.75	.399	-1.143
	금품갈취	.95	.72	.072	-1.138
	괴롭힘	.75	.72	.595	-.534
	집단따돌림	.78	.67	.462	-.532

주: 첨자<sup>1,2)</sup>는 정규분포 보완을 위하여 자연로그치환 실시 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한 값임.

## 3)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모형 적합도는  $\chi^2=586.217(df=125)$ ,  $p=.000$ ,  $TLI=.894$ ,  $CFI=.923$ ,  $RMSEA=.049(90\%LO .045\sim HI .053)$ 로 나타났다. CFI지수는 모형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적합도 지수로 나타났고, TLI는 .9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는 .05보다 작은 좋은 적합도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를 설명하는데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1) 왜도가 절대값 3 미만, 첨도가 절대값 10 미만이면 정규성의 조건에 문제가 없다(Kline, 2011).

〈표 3〉 측정모형 분석결과

N=1,563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S.E	C.R(t)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1.000(r)	.812	-	-
	신체적 학대	.950	.764	.088	10.793***
	방임	.341	.403	.085	4.016***
부모애착	신뢰	1.000(r)	.837	-	-
	의사소통	1.056	.867	.033	32.414***
	소외감	.493	.653	.019	26.104***
학교유대감	학교유대감1	1.000(r)	.526	-	-
	학교유대감2	1.104	.591	.073	15.183***
	학교유대감3	1.324	.620	.085	15.549***
	학교유대감4	1.203	.621	.077	15.563***
	학교유대감5	1.163	.576	.078	14.984***
비행친구 접촉	비행친구접촉1	1.000(r)	.874	-	-
	비행친구접촉2	.929	.848	.070	13.231***
학교폭력 가해행동	언어·정서적 폭력	1.000(r)	.679	-	-
	신체적 폭력	1.100	.795	.115	9.594***
	금품갈취	1.120	.843	.116	9.635***
	괴롭힘	1.111	.839	.088	12.670***
	집단따돌림	.688	.559	.069	9.904***

$\chi^2=586.217$  ( $df=125:P=.000$ ) TLI=.894, CFI=.923, RMSEA=.049

\*\*\* p&lt;.001

측정모형의 잠재변수 간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모형의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아동학대와 비행친구접촉,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가해행동, 부모애착과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부모애착, 아동학대와 학교유대감, 부모애착과 비행친구접촉, 부모애착과 학교폭력 가해행동, 학교유대감과 비행친구접촉, 학교유대감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4〉 측정모형의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N=1,563

	아동학대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	학교폭력가해행동
아동학대	-	-.519***	-.268***	.284***	.354***
부모애착		-	.414***	-.215***	-.252***
학교유대감			-	-.178***	-.285***
비행친구접촉				-	.268***
학교폭력가해행동					-

\*\*\* p&lt;.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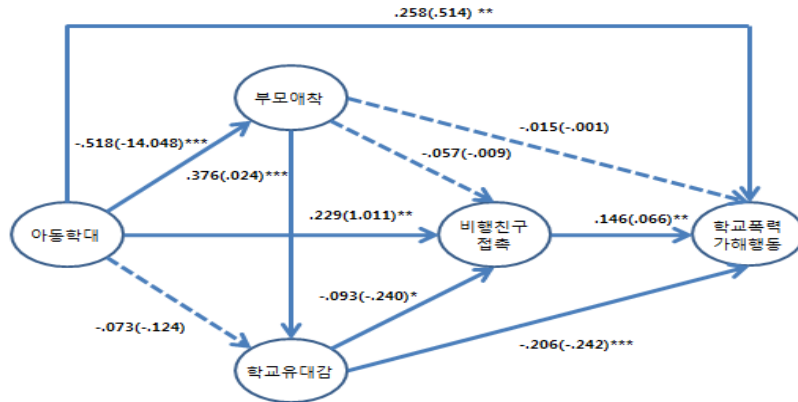
#### 4)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1128.780(df=199)$ ,  $p=.000$ 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한 수준이었고, TLI=.857, CFI=.855, RMSEA=.055(90%LO .052~HI.058)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RMSEA는 .055로 나타나 .08이하의 적절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RMSEA 추정치는 신뢰구간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모형의 RMSEA 신뢰구간 간격도 크지 않으므로(90%LO .052~HI .058) 추정된 값에 오차가 적으며 그 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적합도지수인 TLI와 CFI는 .9에 다 소 못 미치지만, 크게 낮지 않기 때문에 모형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58)〈가설 1 채택〉. 또한 청소년의 아동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는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의 매개과정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설명되어 아동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으로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2〉의 하위가설 중 아동학대경험이 부모애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518), 아동학대경험이 비행친구접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229), 부모애착이 학교유대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376), 학교유대감이 비행친구접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093), 학교유대감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206), 비행친구접촉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14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3, 2-4, 2-7 채택〉.

한편, 부모애착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015), 부모애착이 비행친구접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057)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1, 2-2 기각〉. 사회발달모델의 기본 가정이나 선행연구에서 부모애착의 비행친구접촉에 대한 직접적 영향(Edward, 1992), 부모애착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직접적 영향(Eliot and Cornell, 2009)을 보고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이 비행친구접촉 및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직접적으로 억제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학교유대감의 상관관계(.414)가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부모애착의 영향이 없다가보다는 학교유대감에 의해 부모애착의 비행친구접촉이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이나 폭력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Eliot와 Cornell(2009)의 연구는 학교유대감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고, 부모애착과 학교유대감을 함께 포함한 연구(이은희 외, 2004; 김선아, 2005)에서는 부모애착의 비행친구접촉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억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부모애착이 학교유대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유대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073)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6 기각〉. 본 연구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갖는 취약한 특성들이 사회발달모델에서 주장하는 학교유대감 형성 조건인 상호작용의 참여, 기회, 보상의 사회화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학교유대감 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학대경험 자체는 학교유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발달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유대감 형성조건을 반영하는 변인을 포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학대 청소년이 실

제 학교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참여, 기회, 보상 등의 사회화 과정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이론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구체화하는 변인을 포함하여 학대경험과 학교유대감과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만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다(.150). 본 모형의 다중상관자승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은 .226으로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22.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chi^2=1128.780(df=199)$ ,  $p=.000$ . TLI=.857, CFI=.855, RMSEA=.055(90%LO .052~HI .058)

주: 실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괄호 안은 비표준화 계수임.

\* $p<.05$ , \*\* $p<.01$ , \*\*\*  $p<.001$  n=1,563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표 5>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표준화계수	S.E	비표준화계수	t값
아동학대->부모애착	-.518	3.539	-14.048	-3.970***
아동학대->학교유대감	-.073	.093	-.124	-1.326
아동학대->비행친구접촉	.229	.331	1.011	3.050**
아동학대->학교폭력가해행동	.258	.188	.514	2.737**
부모애착->학교유대감	.376	.003	.024	8.371***
부모애착->비행친구접촉	-.057	.007	-.009	-1.327
부모애착->학교폭력가해행동	-.015	.005	-.001	-.243
학교유대감->비행친구접촉	-.093	.095	-.240	-2.516*
학교유대감->학교폭력가해행동	-.206	.065	-.242	-3.739***
비행친구접촉->학교폭력가해행동	.146	.021	.066	3.090**
성별->학교폭력가해행동	.150	.045	.168	3.761***
학년->학교폭력가해행동	.015	.027	.010	.376
성적->학교폭력가해행동	-.071	.017	-.031	-1.802
가정경제수준->학교폭력가해행동	-.014	.032	-.011	-.350

\*  $p<.05$  \*\*  $p<.01$  \*\*\*  $p<.001$



### 5) 다중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 접촉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Mplus를 통한 매개경로의 유의성 검증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본다(Bransen et al., 2013).

본 연구의 매개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 [아동학대경험→부모애착→학교유대감→비행친구접촉→학교폭력가해](M<sub>2</sub>)는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므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외 [아동학대경험→부모애착→학교유대감→학교폭력가해](M<sub>1</sub>), [아동학대경험→비행친구접촉→학교폭력가해](M<sub>3</sub>), 전체 간접효과(M<sub>1</sub>+M<sub>2</sub>+M<sub>3</sub>)는 95%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주장하는 구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두 개별 간접효과와 전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아동학대경험→부모애착→학교유대감→학교폭력가해](M<sub>1</sub>)경로에서 부모애착과 학교유대감의 간접효과 추정치는 .036, [아동학대경험→비행친구접촉→학교폭력가해](M<sub>3</sub>)경로에서 비행친구접촉의 간접효과 추정치는 .037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 다중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563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표준화 계수	S.E	비표준 화계수	BC95%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M <sub>1</sub> 아동학대경험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학교폭력가해행동	.036	.014	2.491	.008	.064
M <sub>2</sub> 아동학대경험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	학교폭력가해행동	.003	.002	1.686	.000	.006
M <sub>3</sub> 아동학대경험	비행친구접촉	학교폭력가해행동	.037	.014	2.643	.010	.064
전체 간접효과(M <sub>1</sub> +M <sub>2</sub> +M <sub>3</sub> )			.076	.019	3.983	.038	.113

주: BC=Bias-Corrected(편향수정)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동형성을 친사회화 및 반사회화 기관과의 유대감으로 설명하는 사회발달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의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아동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의 매개변인으로 구성된 모형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부모애착 감소와 학교유대감 저하 등 친사회화기관과의 유대관계 훼손을 통해

학교폭력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비행친구의 반사회화 기관과의 유대를 통해 학교폭력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확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청소년 개인과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가정, 학교 또래 등 사회화 기관과의 관계맥락으로 설명하는 사회발달모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기존의 아동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규명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심리내적 특성에 집중하여 왔으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가정, 학교, 또래 등 사회화기관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유대감 변인을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제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대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변화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화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한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 양육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나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시켜야 하겠으며, 보다 적극적인 예방적 실천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학부모 총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대피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변화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부모-자녀 애착 증진을 위한 개입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애착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회화기관인 학교와의 유대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학교폭력 위험성을 높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대로 부모와 정서적으로 유리된 청소년들이 학교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자녀 애착증진 프로그램 제공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대를 행사한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잘못된 양육방식과 학대로 이끈 감정이나 사건을 부모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대행위에 대한 반성과 통찰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올바르게 건강한 부모-자녀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개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김재엽 외, 2011).

셋째, 학대로 부모와 유대관계가 단절된 청소년이 학교현장에서 폭력가해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유대감 증진을 위한 개입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유대감은 학대경험으로 부모와 정서적으로 유리된 청소년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가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교유대감을 구체화하는 학교에 대한 흥미나 학업생활을 통해 학대로 부모

와 정서적으로 유리된 청소년이 학교의 사회적, 학문적 측면에서 또다시 소외되고 부적응하게 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학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대감을 갖도록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학업생활적응을 돕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 학생의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교를 좋아하게 되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김두환·김지혜, 2011)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교사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들의 상당수는 학대로 애착안정성이 결여된 아동들이 보이는 적대감이나 무력감, 불복종 등 행동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들에게 통제적이거나 지시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Webster and Hackett, 2007; Bergin and Bergin, 2009), 학교사회복지사나 상담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학대피해 학생들이 보이는 애착문제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울러 교사로 하여금 피학대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적절한 수행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의 연결을 통해 피학대 청소년들의 학업생활 적응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넷째, 반사회화 매체인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반사회적 가치체계를 가진 비행친구는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Bender(2010)는 학대받은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점차 외톨이가 되고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제됨에 따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집단과 어울리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피학대 청소년이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제되어 반사회화 매체인 비행친구와 어울리지 않도록 교우관계에 대한 개입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프로그램의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또래상담이 삶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또래상담자와의 연결은 피학대청소년에게 상호적이고 긍정적인 우정관계를 학습하는 사회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비행또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Huang 외(2001)의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은 비행또래와의 유대감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사회기술훈련 제공은 비행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중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표본을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통해 변수들 간의 경로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대경험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닌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한 다른 변수들과의 선후관계가 모호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상정하였으나, 역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부모의 학대를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행연구(노충래, 2002; 현안나,

2011)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학대피해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부모의 학대행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 연구결과를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변수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패널데이터 등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성별, 학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을 통제하였으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통제감 등 심리내적인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들 변수를 통제할 정확한 검증이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대유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발생되는 경로가 다를 수 있는지를 학대의 유형구분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부모애착, 학교유대감, 비행친구접촉으로 구성된 본 연구모형이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등 학대유형에 따라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경로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수행된다면, 학대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요청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2011, 『연북중학교와 연세대학교가 함께하는 국내 최고의 안전 교육환경 만들기: '학교폭력·성폭력 Free-Zone'』, 서울: 연북중학교.
- 권현용·김현미, 2009,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 12(1): 1-12.
- 김두환·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 김선아, 2005,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피해 중첩집단과 일반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5-36.
- 김소명·현명호, 2004, “가정폭력이 집단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임상』, 23(1): 17-32.
- 김순혜, 2007, “학교폭력 관련변인 연구”, 『교육논총』, 27(2): 67-85.
- 김재엽·이지현·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 김재엽·이지현·여원,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3(4): 59-82.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 노충래·이신옥,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피해경험, 내적 통제감 및 학교생활인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사업』, 1-35.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 체계적 영향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69.
- 이은희·공수자·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이 철, 2009,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발전론적 연구: 손베리 모델의 부분 검증”, 『한독사회과학 논총』, 19(1): 177-204.
- 임영식, 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1-26.
- 정익중, 2008, “아동학대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익중·박현선·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조춘범·조남홍,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현안나, 2011, “초등학생들의 아동학대 잠재적 집단 유형과 심리사회적 적응”, 『학교사회복지』, 21: 83-11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 Alvarez-Rivera, L. L., and Fox, K. A., 2010, “Institutional attachment and self-control: Understanding deviance among Hispanic adolesce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4): 666-674.
- Armsden, G. C., and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lationship to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viezer, O., Sagi, A., Resnick, G., and Gini, M., 2002, “School competence in young adolescence: Links to early attachment relationships beyond concurrent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5): 387-409.
- Battistich, V., Schaps, E., and Wilson, N., 2004, “Effects of an elementary school intervention on students’ “connectedness” to school and social adjustment during middle school”,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4(3): 243-262.
- Bender, K., 2010, “Why do some maltreated youth become juvenile offenders? A call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adaptation of youth servi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3): 466-473.
- Bergin, C., and Bergin, D., 2009, “Attachment in the classroom”, *Education Psychology Review*, 21(2): 141-170.
- Black, D. S., Grenard, J. L., Sussman, S., and Rohrbach, L. A., 2010, “The influence of school-based natural mentoring relationships on school attachment and subsequent adolescents risk behaviors”, *Health Education Research*, 25(5): 892-902.
- Bransen, R. H., Lasgaard, M., Koss, M. P., Shevlin, M., Elklit, A., and Bonner, J., 2013, “Testing a multiple mediator model of the effect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adolescent sexual victimiz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3(1): 47-54.
- Browne, A., and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136-162, in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edited by Bollen, K. A., and Long, J. 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Catalano, R. F., Haggerty, K. P., Oesterle, S., Charles, B., and Hawkins, J. D., 2004, "The importance of bonding to school for healthy development: Findings from the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252-261.
- Catalano, R. F., and Hawkins, J. D., 1996, "The social developmental model: A theory of an antisocial behavior", 149-197, in *Delinquency and Crime: Current Theories*, edited by Hawkins, J. 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J. K., and Astor, R. A., 2010, "School violence perpetration in Taiwan: Examining how western risky factors predict school violence in an Asian cul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8): 1388-1410.
- Chui, W. H., and Chan, H. C. O., 201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ocial bonds and juvenile delinquency in Hong Kong", *Child Youth Care Forum*, 41(4): 371-386.
- Cicchetti, D., Toth, S. L., and Maughan, A., 2000, "An ecological-transactional model of child maltreatment", 689-722, in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edited by A. Sameroff, A. Lewis, M., and Miller, 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Cohen, A. K., and Short, J. Jr., 1961, "Juvenile delinquency", 71-126, in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edited by Merton, R., and Nisbet, R.,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Cunningham, N. J., 2007, "Level of bonding to school and perception of the school environment by bullies, victims, and bully victim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7(4): 457-478.
- Demant, J. and Houtte, M. V., 2012, "School belonging and school misconduct: The differing role of teacher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1(4): 499-514.
- Drapela, L. A., and Mosher, C., 2007, "The conditional effect of parent drug use on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 drug use: Social control theory and social developmental model perspective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16(3): 63-87.
- Edwards, W. J., 1992, "Constructing and testing a multiple-theory(integrated) model of juvenile delinquency", *Mid-American Review of Sociology*, XVII(1): 31-43.
- Eliot, M., and Cornell, D. G., 2009, "Bullying in middle school as a function of insecure attachment and aggressive attitud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0(2): 201-214.
- Foshee, V., and Bauman, K. E., 1994,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9(1): 88-104.
- Hawkins, J. D., and Lishner, D., 1987, *Etiology and Prevention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lenum Press.
- Hawkins, J. D., and Weis, J. G., 1985,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n integrated approach to delinquency prevention",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6(2): 73-97.
- Hawkins, J. D., Guo, J., Hill, K. G., Battin-Pearson, S., and Abbott, R. D., 2001, "Long term effects of the Seattle Social Development Intervention on school bonding trajectorie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5(4): 225-236.
- Hawkins, J. D., Smith, B. H., Hill, K. G., Kosterman, R. F., and Abbott, R. D., 2007,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and preventing health and behavior problems during the elementary grades: Results from the 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 *Victims and Offenders*, 2: 161-181.
- Herrenkohl, T. I., Huang, B., Tajima, E. A., and Whitney, S. D., 2003, "Examining the link between

- child abuse and youth violence: An analysis of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10): 1189-1208.
- Hong, J. S., Espelage, D. L., Grogan-Kaylor, A., and Allen-Meares, P., 2012, “Identifying potential mediators and moder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in school”, *Education Psychology Review*, 24(2): 167-186.
- Hong, S., Malik, M. L., and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Huang, B., Kosterman, R., Catalano, R. F., Hawkins, J. D., and Abbott, R. D., 2001, “Modeling mediation in the etiology of violent behavior in adolescence: A test of the social developmental model”, *Criminology*, 39(1): 75-107.
- Kearl, M., and Gordon, C., 1992,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ondon: The Guilford Press.
- Lau, R. S., and Cheung, G. W., 2012, “Estimating and comparing specific mediation effects in complex latent variable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5(1): 3-16.
- Leff, S. S., Power, T. J., Manz, P. H., Costigan, T. E., and Nabors, L. A., 2001, “School-based aggression prevention programs for young children: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violence preven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30(3): 344-362.
- Libby, H. P., 2004, “Measuring student relationships to school: Attachment, bonding, connectedness, and engagement”,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274-283.
- Lonczak, H. S., Abbott, R. D., Hawkins, J. D., Kosterman, R., and Catalano, R. F., 2002, “Effects of the 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 on sexual behavior, pregnancy, birth, and STD outcomes by age 21”,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6(4): 438-44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and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1): 83-104.
- Maddox, S. J. and Prinz, R. J., 2003, “School bond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ed variable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6(1): 31-49.
- McCloskey, L. A., and Stuewig, J., 2001,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mong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1): 83-96.
- Menard, S., Elliott, D. S., and Wofford, S., 1993, “Social control theories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Studies in Crime and Crime Prevention*, 2: 69-87.
- Mueller, E., and Silverman, N., 1989, “Peer relations in maltreated children”, 529-578, in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edited by Cicchetti, D., and Carlson, V.,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 Multisite violence prevention project, 2009, “The ecological effects of universal and selective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 randomized t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7(3): 526-542.

- Naiaka, S. S., Gottfredson, D. C., and Wilson, D. B., 2001, "A meta-analytic inquiry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ed risk factors and problem behavior", *Preventive Science*, 2(4): 257-271.
- Ohene, S. A., Ireland, M., McNeely, C., and Borowsky, I. W., 2006, "Parental expectations, physical punishment, and violence among adolescents who score positive on a psychosocial screening test in primary care", *Pediatrics*, 117(2): 441-447.
- Peacock, M. J., McClure, F., and Agars, M. D., 2003, "Predictors of delinquent behaviors among Latino youth", *The Urban Review*, 35(1): 59-72.
- Richard, J. F., Schneider, B. H., and Mallet, P., 2011, "Revisiting the whole-school approach to bullying: Really looking at the whole school",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3(3): 263-284.
- Sausa, C., Herrenkohl, T. L., Moylan, C. A., Tajima, E. A., Klika, J. B., Herrenkohl, R. C., and Russo, M. J., 2011,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parent-child attachments, and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 111-136.
- Shoemaker, D. J., 2005, *Theories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rout, P. E., and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and Rub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2(4): 249-270.
- Walden, L. M., and Beran, T. N., 2010, "Attachment quality and bullying behavior in school-aged youth",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5(1): 5-18.
- Webster, L., and Hackett, R. K., 2007, "A comparison of unresolved versus resolved status and its relationship to behaviour in maltreate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8(3): 365-382.
- Williams, K., and Hawkins, R., 1986, "Perceptual research on general deterrence: A critical review", *Law and Society Review*, 20(4): 545-572.



## Pathways from Child Abuse to Adolescent School Violence -Focusing on Social Development Model-

Lee, Jihyeo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ediation role of parental attachment, school bonding and delinquent peers in effects of child abuse experience on offending school viole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boys and girls enrolled in 50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 from October 15 to November 25 in 2012 and total 1,563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PASW 18.0, AMOS 18.0 and Mplu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ild abuse experience is analyzed as effecting directly to offending in school violence but also having indirect effecting through mediation process with parental attachment, school bonding and delinquent peers from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other finding indicates that multiple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school bonding, delinquent peers through Mplus nonlinear analysis, pathways including mediator of parental attachment, school bonding and delinquent peers are verifi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ce. Below is discussed for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middle school based on this study.

Key words: child abuse, school violence, parental attachment, school bonding, delinquent peers, Social Development Model

[논문 접수일 : 14. 01. 17, 심사일 : 14. 02. 28, 게재 확정일 : 14. 04. 29]

## 〈기고자 소개〉

### 권현정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고찰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시장화분석”(『사회복지정책』, 41(1),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효과가 생활만족도와 가족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복지학』, 63(4), 2011).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변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행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정책』, 38(3), 2011).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회복지정책분석임.

E-mail: martha8291@hanmail.net

### 박연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비판사회정책』, 39(2), 2013, 공저) 주요관심분야는 사회복지법제연구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학대, 폭력관련 사회복지분야의 재판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연구임.

E-mail: yeonjulaw@naver.com

### 박봉길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독거노인의 경제적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고독감의 조절효과”(『노인복지연구』, 63, 2014), “중년기 위기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적 지지의 조절효과”(『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2013, 공저),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한국노년학』, 28(4), 2008),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9,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자살예방, 재가복지임.

E-mail: pbgsw@naver.com

### 송인석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욕구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2(3), 2010, 공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농협문화복지재단, 2010, 공저), 『사회복지와 탄력성(Resiliency)』, (나눔의집, 2004, 공동번역)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지역복지, 사회복지행정임.

E-mail: siswelfare@hanail.net

### 이지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 “Factors Influencing Help-Seeking Behavior among Battered Korean Women in Intimate Relationships”(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5), 2011 공저).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매개효과”(『한국사회복지학』, 63(4), 2011, 공저).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위험음주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2(4), 2010, 공저). 주요 관심분야는 청소년복지,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임.

E-mail: hifivejh@hanmail.net

### 변금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주요 논문으로는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정책』, 40(4), 2013), “생애과정 전환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5(3), 2013, 공저),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4(3), 2012)가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근로빈곤,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 생활시간연구임.

E-mail: tgoldsun@naver.com